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음 6월 17일) 제23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협업부서 담당자들이 상황판단 및 대책 점검회의를 가져 태풍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하고 있다.

## 태풍 '다나스' 북상, 전북은 '비상'

### 오늘부터 21일까지 영향권 예상... 도, 대응체계 돌입 둔치주차장 선제 대처·공사현장 안전관리 철저 등 강조

전북도는 19~21일 전북지역이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태풍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18일 오후 3시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원장을 대상으로 긴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피해 최소화 되도록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와 폭우 대비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대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용범 부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태풍은 크기는 소형급이지만 태풍 다나

스의 영향으로 잠미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잠미비도 예상보다 많이 내리고 변칙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실국별로 대처계획을 조목조목 점검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폭우가 빈번함에 따라 둔치주차장과 상습침수 지하차도의 차량에 대해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산사태 위험지구 사전대피와 재해복구사업장 등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는 물론 시설별 소관부서의 응급복구체계 유지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급대책과 피해 시 예

비비 지원대책, 이재민 구호대책 등 태풍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실국별 대책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8일부터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하여 기상정보와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태세 구축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군과 협조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 가동준비, 강풍 시 선박 결속·대피·통제, 해안가·방조제·해안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건설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점검, 관바위, 방파제 등 바닷가 낚시객·관광객 사전 출입통제 등 위험지역 사전통제 실시는 물론,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구조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그밖에 농축산물 피해예방을 위해 주변 배수시설을 사전 정비하고, 폭우 시 저수지 범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도민들께도 태풍 내습 기간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호우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를 당부했다.  
태풍내습 기간 중에는 강풍, 호우, 풍랑에 대비하여 되도록 하천·해안가 등 위험지역의 출입과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안으로 대피해야 하고,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대비해 모래주머니와 차수판을 사전에 준비하고, 집주변의 배수구 막힘이 없도록 확인이 필요하며, 침수와 산사태에 우려지역 거주민은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개선 조례 제정 추진

전북도는 도내 시군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와 관련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등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안에 설치

하는 것으로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지칭한다.  
지난 2014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와 관련하여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권

고한 바 있다.  
이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사전 심의절차 및 주기적 안전점검,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업무의 일원화 등을 통해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기준 도내 4개 시군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군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할 경우에는 적정성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 문 대통령·여야 대표 "日 경제보복 초당 대응"

### 회동 후 공동 발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설치 日 정부, 동북아 안보협력 '위협' 외교적 해결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뉴스에 따르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희경 자유한국당, 최도자 바른미래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직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여야 5당은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쟁력의 리더십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함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여야 5당은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본격화

### 공항 인접 새만금호 활용 2.1GW 발전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긍정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19일 허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 ▲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및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

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하여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5면 - 도내 3개 군 특성화고 지정 6면 - '에담제' 올해의 브랜드 대상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전북뉴스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